

국민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

권익



국민 생활 공감

07 | 08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2009 | Vol.09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에너지 절약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켜 봅시다!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서민가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서민의 한숨은 늘어가고, 주머니는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약 정신' 이 아닐까요?
어려웠던 그때 그 시절,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부모님의 절약 정신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한 가정에서 사용되는 TV와 오디오의 대기전력 소모량은 하루 40W,
1,300만 가구가 대기전력 발생 시간을 하루 4시간씩 줄이면 연간 7억 6,000만kW/h,
돈으로 환산하면 760억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존자원 하나 없는 우리의 절약을 시작으로
경제도, 환경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착한 마음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보실래요?



07 | 08 2009 | Vol.09



세상사는 풍경 | 제3세계 여성들의 수제품사주기 캠페인 전개 04

특집

청렴한국의 미래, 청소년이 만든다.

ACRC Research | 클린 코리아, 청소년들의 반부패 의식에서 시작돼야 08

ACRC Report | 학생들의 청렴의식을 일깨워라! 10

ACRC Competition | '청렴'은 고등학생들의 붓끝을 타고 온다! 12

통

소통

해외 청렴 리포트 | 부패척결에 앞장 선 정부와 투명한 공직 사회의 힘, 싱가포르 16

국민생활공감

솔로몬의 선택 | 대인 교통사고에서 쌍방과실의 경우 운전자의 벌점을 2분의 1로 줄여주지 않나요? 20

고충처리 카페 | 충청남도 서천역 진입 도로 개설 22

민원실 풍경 | 우리 아빠는요, 국민을 위해 일을 한대요! 24

기분 좋은 편지 |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로 어려운 국민들을 도와주세요! 26

기분 좋은 만남 | 토지에 대한 권리를 찾아 드립니다 28

행복 메신저 | 국방부 '도끼 할머니'의 잃어버린 땅을 찾아서 30

청렴예찬 | 2008년 부패방지시책평가시·도교육청 종합 1위 대전교육청 32

아름다운 약속 | 외부 강의·회의 등의 신고 35

感

여유

여행의 재발견 | 한산도 앞바다에서 울려 퍼진 칼의 노래 <통영 충무공 이순신> 38

문화로 보는 세상 | 우리 엄마 얼굴은 조금 까매요! '선녀에게 날개옷을 돌려줘' 42

돈 버는 방법 | 장애인을 위한 금융혜택을 아십니까? 44

생활법률110 | 여행사 횡포, 제대로 알고 맞서라! 46

ACRC NEWS 48

국민 참여 마당 50

제3세계 여성들의 수제품사주기 캠페인 전개

페어트레이드코리아 이미영 대표

“대표님, 라오스에서 물건이 도착했어요, 빨리 오세요”라는 연락을 받은 사회적기업 페어트레이드코리아 대표 이미영(42) 씨는 하던 일을 멈추고 서울 안국동에 있는 공정무역브랜드 매장 ‘그루’로 달려간다. 제3세계 사람들에게 공정한 대가를 주기에 희망무역이라 불리는 공정무역을 알리기 위해 힘쓰는 이미영 대표를 네팔,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 공정무역을 통해 들여온 제품들로 가득 찬 ‘그루’에서 처음 만났다.

조금 전 라오스로부터 온 물건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있는 이미영 대표의 표정은 감탄으로 가득 찼다. 역시나, 이번에도 수입한 물건에 대해 만족한 눈치다.

“보세요. 얼마나 정교해요? 날실과 씨실이 교차한 이 섬세함이란, 정말 대단한 정성이지요. 이 옷 하나를 만들기 위해 베틀로 천을 짜고, 천을 염색하며, 단추를 다는 일 모두 라오스 여성들의 손을 거쳐 탄생한 작품이에요.”

얼마 전, 생산현지답사를 위해 라오스를 방문한 그녀는 달그락 달그락 소리를 내며 베틀 질 하는 여성 등에 매달려 쉼쉼 잠든 아이를 보며 ‘저 아이가 자라서 학교에 가려면 더 열심히 공정 무역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단다. 대학 졸업 후 여성환경연대 등에서 활동하며 운동가의 삶을 살아온 그녀가 공정무역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쩌면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르겠다.



1. 공정무역을 제3세계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페어트레이드코리아 매장 '그루' 입구 2. 공정 무역의 가치를 우리나라에 알리는 사회적 기업 페어트레이드코리아 직원들 3. 라오스에서 수입된 수공예 제품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 손꼽히는 네팔, 라오스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여성’입니다. 여성환경연대에서 활동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 ‘공정무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2007년 우리나라에 공정무역의 가치를 소개하기 시작했죠.”

공정무역은 ‘원조가 아닌 무역’을 통해 생산자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공정하게 지불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돕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무역 방식이라고 설명하는 그녀는 마치 ‘공정무역’을 전파하는 전도사 같다. 그녀가 주로 다루는 공정무역 상품은 네팔,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여성들이 만든 의류와 패션소품 등의 수공예품이다.

윤리적 소비, 공정무역을 제3세계 여성들에게 희망을

공정무역을 시작한지 3년, 그녀에게는 꿈이 있다. 그것은 소비자 스스로 공정무역 제품을 찾았으면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품의 퀄리티를 높이고,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등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단다. 그래서 하루가 24시간으로 모자란다고 말하는 그녀이지만 요즘 공정무역의 가치를 알고 동참하려는 소비자가 차츰 늘고 있어 행복하다.

“생산자에게 공정한 대가를 주는 공정무역은 일반 소비와는 달라요. 일주일 50시간씩 양탄자를 짜던 네팔 소녀에게는 학교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베틀로 옷을 짓는 라오스 여성과 그녀의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을 선물하는 일이지요. 같이 동참하실래요?”

내가 소비하는 물건을 통해 희망을 주는 일이기엔 희망무역이라고도 불린다는 공정무역, 공정무역제품을 소비하는 것은 공정한 세상을 위해 그리고 윤리적인 세상을 위한 작지만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 강조하는 이미영 대표. 그녀는 확신한다. 공정무역을 가난한 이웃들이 보다 행복해지고 전 세계가 따뜻하고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뀔 수 있음을. 🌍

공정무역이란? 1950년 영국에서 시작된 공정무역은 가난한 제3세계 국가의 생산자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공정하게 지불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돕는 무역 방식으로 오늘날 전 세계적인 사회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청렴한국의 미래, 청소년이 만든다.

*08 ACRC Research 클린 코리아, 청소년들의 반부패 의식에서 시작돼야_ 2009년 청소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10 ACRC Report 학생들의 청렴의식을 일깨워라_ 청렴연구시범학교를 찾아서

*12 ACRC Competition 청렴은 고등학생들의 붓끝을 타고 온다_ 제2회 전국 고등학생 청렴논술경시대회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가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청렴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장차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고자 여러 가지 청렴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청렴연구학교 운영, 청렴 백일장 및 논술대회 개최, 청렴 홍보단 결성 등의 활동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5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설문조사한 '청소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통해 현재 우리 청소년들의 부패인식도를 알아보고, '청렴연구시범학교'의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더불어 '청소년 청렴논술경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학생의 작품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촌지문화의 일면을 생각해 본다.

클린 코리아, 청소년들의 반부패 의식에서 시작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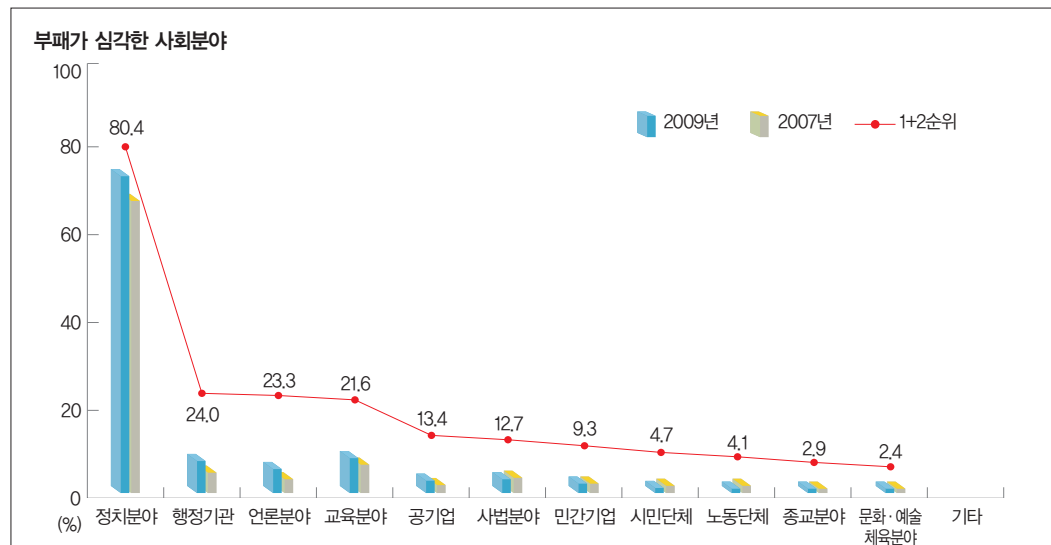
2009년 청소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전국의 중·고교생 1,3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청소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청소년의 76.8%는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해 만 20세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보다 17.7%나 높은 수치다. 청소년들의 부패인식도를 통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에 대해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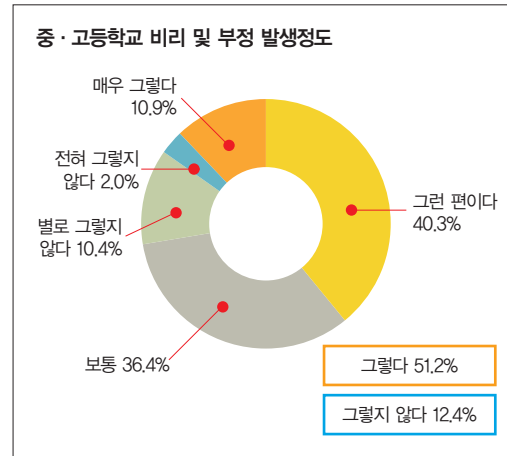
정부는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부패가 척결되어야 한다'며 끊임없이 반부패 정책을 펼쳐왔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대한민국은 여전히 부패한 나라다. 이번 부패인식도 조사에서도 청소년의 51.7%가 '향후 2~3년 후에는 지금보다 부패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한국은 부패한 나라가 아닌가요?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수준에 대해 청소년들의 76.8%가 '부패하다'고 응답했고, 19.2%는 '보통이다', 4.0%가 '부패하지 않다'고 응답해 우리 청소년들이 부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의 발생 이유로는 △학연·지연을 중시하는 사회풍조(34.5%)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패방지를 위한 법이나 제도 미흡(21.7%)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미흡(21.1%) △편법을 이용하는 국민의식(20.5%)이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청소년들은 가장 부패가 심각한 사회분야로 '정당·입법 정치분야'를 뽑았다.



중·고등학교에서의 비리발생에 51.2%가 ‘그렇다’고 답해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비리 및 부정 발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청소년들은 ‘중·고등학교에서의 비리 및 부정 발생’에 대한 질문에서 절반 정도인 51.2%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36.4%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의 응답은 12.4%에 그쳤으며 10.9%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2007년 조사 대비 중·고등학교에서 비리 및 부정이

‘발생한다’는 응답률은 56.9%에서 51.2%로 하락한 것으로 보아 학교비리·부정에 대한 학생들 인식은 다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저렴한 불법 복제 CD 구매해도 되지 않나요?

청소년의 윤리의식과 부패에 대한 인식을 묻는 몇몇 문항들에서는 청소년의 의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보는 사람이 없으면 무단횡단을 한다(51.1%) △물건 구매 후 거스름돈을 더 받으면 그냥 갖는다(40%) △싸다면 불법 복제한 CD라도 그냥 구매한다(31.3%) 등과 같이 생활 속 사소한 부조리에 대한 용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험을 볼 때 부정행위를 한다(2.3%) △감옥에 가더라도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다면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7.2%) △아무도 보지 않으면 법질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11.8%) 등에 대한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30.1%)고 응답했고 △타인의 사소한 부정과 비리에 대해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30.8%) △부정부패를 알게 되어도 나에게 손해가 없다면 모른 채 한다(23.9%) 등과 같은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적 성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청렴의식 캠페인 사업을 강화한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의식은 물론 청렴의식 고취와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기존의 청렴연구학교 운영, 청렴 백일장, 청렴 논술대회, 청렴 홍보단 등의 청소년 청렴의식 캠페인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나이와 성별에 맞게 개발하고, 청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청렴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문제를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

‘2009년 청소년 부패인식도 조사’는 올해 5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국민권익위가 (주)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32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조사방법 :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전화설문조사 ○ 신뢰수준 : 95% ± 2.69%p

학생들의 청렴의식을 일깨워라!

청렴연구시범학교를 찾아서

청소년 청렴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청렴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청렴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렴연구시범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금년도 6곳의 시범학교 중 양산초등학교, 북촌초등학교, 상남중학교, 부광고등학교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 알아보자.

직접 집필한 청렴교재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광주양산초등학교



2008년부터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광주양산초등학교는 '행동이 떳떳하고 당당한 것'이 청렴의 첫 걸음이라 생각하고 이에 걸맞게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광주양산초등학교의 청렴교육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푸름이와 놀자』라는 청렴교재. 본교 교사들이 직접 집필한 책으로 그 효율성을 인정받아 광주광역시동부교육청 장학 웹자료로 제작되어 활용될 계획이다.

① **청렴교재 직접 집필** 본교 교사들이 『푸름이와 놀자』란 교재를 직접 집필하였다. 책은 저학년용(1~2학년), 중학년용(3~4학년), 고학년용(5~6학년)으로 구분하여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

② **청렴교재 E-Book으로 제작**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양산초등학교에서 제작한 교재를 이용하여 만든 E-Book을 각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량시간 또는 특

별활동시간에 청렴교육과정(1시간 이상)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음.(푸름이와 놀자_ <http://clean.gen.go.kr>)

③ **다양한 문화 행사** 자신이 실천하겠다고 계획한 것들을 캡슐에 담아 땅에 묻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열어보는 청렴사랑발대식, 청렴을 주제로 한 문예활동(청렴사랑만들기), 청렴 캐릭터·만화·슬로건·UCC 공모 활동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흥미 유발.

가족, 지역주민과 함께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북촌초등학교



북촌초등학교는 청렴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 끝에 올해 청렴연구시범학교로 지정되었다. 북촌초등학교의 청렴교육 프로그램이 타 학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지역주민, 학생 가족들도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 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 사회에서도 청렴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 ① **맑은누리 칭찬통장** 청렴한 행동 실천에 대해 칭찬을 하고, 그것을 통장에 기록.
- ② **맑은누리 가게와 자치회** 파는 사람이 없이 양심에 따라 필요한 물건을 사는 가게. 이를 통해 양심과 청렴의식을 고취. 자치회는 4~6학년을 대상으로 함.
- ③ **맑은 생활 실천 기록 카드** 청렴 덕목 실천 사항을 5단계로 평정해서 그날 실천한 행동을 평가 기록.
- ④ **가족과 함께하는 청렴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 청렴가족 신문을 제작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렴 연찬회를 열어 자녀 청렴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 ⑤ **학교사랑방 운영**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도서관을 개방해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

일상생활 속에 청렴의식이 스며드는 것이
진 정 한 교 육! **상 남 중 학 교**



평소 청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는 했지만 청렴 연구시범학교로 지정이 되고 난 후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마련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청렴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 생각하고 방송, 독서, 신문 등을 통해 청렴의식 고취에 힘쓰고 있다

- ① **청렴도서 코너** 도서관에 청렴도서를 별도로 분류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청렴 독후감 대회를 실시해 시상.
- ② **청렴실천 점검카드** 학생들에게 '나의 청렴실천 카드'를 제공하고 스스로 한 달 동안 청렴 실천 정도를 점수화하여 기록. 분기 말에 총 합계를 내어 청렴우수학생을 선정.
- ③ **교과수업 실시** 교과별로 4대 덕목(환난상훈, 과실상규, 예속상교, 덕업상권)과 관련 있는 단원을 추출하여 사례 자료를 찾고 매월 2회 수업 실시.
- ④ **청렴교육의 날** 매월 1회 첫째 주 자치활동을 청렴의 날로 정하고 자료 및 동영상 활용, 청렴 소양 교육을 실시 후 일지 작성.

- ⑤ **청렴교재 방송** 청렴교육 교재인 『청렴생활습관의 형성』을 매일 오전 8시 25분부터 30분까지 방송 실시.
- ⑥ **청렴명상의 시간**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50분부터 9시까지 청렴명상의 시간을 운영.

청 렬 교 육 은 어 린 때 부 터! 부 광 고 등 학 교



“청소년 시절부터 내면화된 청렴의식은 어른이 되어서도 이어지기 때문에 부정부패 척결에 큰 도움이 되므로 중요하다.”

‘청렴교육이 왜 중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부광고등학교의 대답이다. 부광고등학교는 이러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청렴교육 프로그램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실시하고 있다.

- ① **청렴 봉사대 운영** 청렴 캠페인 및 청렴 시범학교 홍보, 청렴 리더 육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청렴 지킴이, 청렴 나누미, 청렴 도우미 활동을 실시.
- ②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교육** 국민권익위 청렴교육센터 동영상, 관세청의 '아침편지' 동영상 외에도 본교 영화영상제작부 학생들이 직접 청렴 UCC를 만들어 교육 자료로 활용.
- ③ **개인별 청렴 학습지 - '청렴! 그 아름다운 이야기' 제작 및 활용** 청렴교육센터의 동영상 자료 및 관세청 '아침편지' 동영상을 통해 청렴을 내면화할 수 있는 학습지를 개발.
- ④ **부광 클린 캠프 운영** 청렴 봉사대 및 참여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에 청렴 리더를 육성하고자 실시. 이를 위하여 '한국투명성기구'에 의뢰해 청렴교육 전문 강사 초빙.
- ⑤ **흥사단 및 교내 봉사공동체 활동과 연계한 청렴실천 활동** 투명사회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 '흥사단'과 '효행봉사단'을 통해 청렴의 생활화 실천. 🌍

'청렴'은 고등학생들의 붓 끝을 타고 온다!

제2회 전국 고등학생 청렴논술경시대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지난 5월 24일 '제2회 전국 고등학생 청렴논술경시대회'를 개최했다. 서울 경희대 학교 청운관에서 진행된 논술경시대회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224개교 522명의 고등학생들이 참가해 '춘지 및 경조문화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젊은 자성의 한 판 승부를 겨뤘다. 그 결과 전북여자고등학교 송지원 양(19세)이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그 외 5명이 우수상, 10명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다음은 제2회 전국 고등학생 청렴논술경시대회에서 최우수작을 받은 송지원 양의 글이다.



수상소감



송지원
전북여자고등학교 3학년

Q 최우수상 수상소감은?

저보다 훨씬 뛰어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한 대회였기 때문에 좋은 경험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고 무척 기쁩니다. 평소에 소외 계층의 이익이나 공정한 법 집행, 공직자의 윤리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또 작년에 기출된 제시문을 분석하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려진 '청렴' 관련 자료를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그에 관해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기도 했고요.

Q 우리 사회에서 청렴이란?

우리나라는 고위 공무원이나 기업인들이 부패를 저질렀다는 소식이 유난히 많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이 권력과 부를 가질수록 청렴함을 지키는 것이 왜 이리 어려운가하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부패가 많은 우리 사회에서 청렴한 공직자, 청렴한 기업인은 그 자체로 다른 이의 모범과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모두 펼쳐 보일 수 있게 하는 선결조건은 부패 척결, 즉 청렴입니다.

최우수작

촌지의 미래는 없다



우리의 촌지 문화는 외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자녀를 유학 보낸 학부모들이 타국의 선생님들께 촌지를 건네서다. 이제는 '한국인 학생이 오면 돈을 준다'며 기대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한다. 본디 스승의 은혜와 노고에 대한 감사 표시로 생긴 문화의 의미가 왜곡되어 전파된 부끄러운 사례이다.

학부모와 학생이 고마운 마음만 담아 선물을 준 거라면 참 마음 따뜻한, 장려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내 아이를 잘 봐달라는 부탁의 의미로 주고, 받은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더 신경을 쓴다면 그것은 분명 뇌물이다. 액수의 소소함을 떠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청탁했다면 비리이며, 소외될 학생들을 위해 막아야 할 사태다. 촌지를 근절할 순 없어도 그 폐해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제도적 차원에서 찾아보자면 이미 많은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승의 날 쉬기'가 있다. 촌지가 가장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그 날만 쉬어도 상당수 촌지가 줄어든다.

스승의 날을 학년말로 옮기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한 해의 수고에 감사하며 그 때 건네는 선물이야말로 진정한 '촌지'일 것이다. 또는 충북의 학교처럼 촌지를 거부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좋다.

의식 개혁을 위해서는 인터넷 강국의 특성을 살려 블로그나 UCC영상을 통해 촌지 거부를 홍보할 수 있다. TV나 라디오 광고 활용도 효과적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촌지 근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야 한다. 교육받은 학생들은 당장은 부모님이 촌지를 건네는 것을 막고, 미래에 학부모가 되어 부끄러운 관행을 멈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최한 '제2회 전국 고등학교 청렴논술 경시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열심히 써내려가고 있다.

A photograph of a park path with trees and a person's arm in the foreground. The path is paved and leads into a lush green area with many trees. A person's arm is visible in the foreground, reaching out towards the path. The background is slightly blurred, emphasizing the path and the person's arm.

16	해외 청림 리포트
20	솔로몬의 선택
22	고충처리 카페
24	민원실 풍경
26	기분 좋은 편지
28	기분 좋은 만남
30	행복 메신저
32	청림예찬
35	아름다운 약속



通, 소통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과 소통합니다’

영국의 어느 신문사에서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법’을 주제로 현상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 고속열차 등 빠른 교통수단들을 물리치고 당선된 방법은 바로 ‘좋은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멋진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부패척결에 앞장선 정부와 투명한 공직 사회의 힘,

싱가포르

아시아의 강소국 싱가포르, 인구 442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신혼선진국으로 탈바꿈한 지 오래다. 경제선진국인 동시에 청렴선진국으로서 세계에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2008년, 부패인식지수(CPI) 조사에서 세계 4위, 아시아 1위를 기록한 싱가포르 모델을 소개한다.

싱가포르 하면 두 개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하나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깨끗하며 쇼핑하기에 좋은 나라'라는 긍정적인 이미지이다. 또 하나는 거리에 침을 뱉거나 화장실에서 물을 안 내리면 벌금을 내야 하는 '규제의 나라'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다. 그 양면의 중심에 선 사람이 바로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리관유(李光耀) 초대 총리이다. 싱가포르는 오늘날 실질국민소득(GNI)이 3만 7,169달러에 달하는 경제대국이지만 처음부터 잘사는 나라는 아니었다. 부패가 만연하고 물마져 말레이시아에서 사다 먹어야 할 정도로 낙후됐었다. 그 낙후된 곳을 일으킨 주인공이 리관유 총리이기 때문에 그를 빼놓고서는 싱가포르를 이야기할 수 없다. 그는 1960년대 초 말레이시아연방에 가입해 낙후된 싱가포르를 일으키려 했지만, 말레이계가 폭동을 일으키면서 인종갈등으로 말레이시아와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결국 1965년 싱가포르는 연방에서 탈퇴해 '원하지 않는 독립'을 하게 된다. 존망 위기에 놓이자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그는 해외 투자 유치를 선택한다.

리관유 총리는 부패척결에 남다랐다. 해외 기업들이 싱가포르를 신뢰하고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시작된 부패척결에 대해 리관유 총리는 "부패방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생존의 문제이다. 반부패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



1. 8m가 되는 거대한 크기의 멀리언상. 사자모양의 상반신과 물고기 모양의 하반신으로 조각된 멀리언상은 전설 속 동물로 싱가포르(푸라도시)라 하는데 그것은 지금 국명의 유래이기도 하다.

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굴복시켜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 결과 강력한 법을 만들어 싱가포르를 청렴국가로 만들었고 오늘날의 경제성장을 일궈냈다.

부패척결의 강력한 의지, CPIB

리관유 총리는 재임기간(1959년 6월~1990년 11월)에 단계적으로 부패방지법을 개정했다. 1960년 개정 때 탐오조사국(CPIB: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이하 CPIB)을 설립하고 수사관



에게 수사권과 증인출석 요구권을 부여했다. 1963년에는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받을 의도가 있었거나 이에 따르는 처신을 했을 때에도 범죄가 성립되도록 했으며, 해외에서 뇌물을 받거나 비슷한 부정을 저질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1981년 개정에서는 뇌물수수자에 대해 형벌과는 별도로 받은 뇌물 전액을 반환하되 반환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액수에 따라 징역을 더 부과하고, 최고 5년의 징역에 병과되는 벌금도 1만 싱가포르달러(약 87억원)까지 올렸다.

또한 부패방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했다. 익명으로도 부패신고가 가능하며, 고발인이 고발사건의 민·형사재판 증인으로 설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는 등 고발인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에 전력을 기울였다.

정 치 인 들 의 굳 건 한 청 령 의 식
오늘날 싱가포르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정치인들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였다. 일례로 리관유 초대 총리는 자신의 친구였던 테 চে앙(鄭章元) 건설교통부 장관의 미화 20만 달러 뇌물사건에 대해서조차 '선처'의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혁혁한 공을 세운 테 চে앙 장관의 선처를 요구했지만 리관유 초대 총리는 장관을 비롯해 관련 인물에 대해 형벌을 내렸다. 이처럼 부패척결에 누구보다 앞장선 이들이 정치적 지도자들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의지는 부정부패방지법이 현실에서 엄격하게 적용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뇌물을 실제로 받지 않았지만 받을 의도를 드러내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만 하더라도 처벌할 정도였다. 법이 행위 결과를 처벌하는 한계를 넘어 그 의사를 보인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되도록 했다. 또한 싱가포르 공무원들은 가벼운 선물조차 값을 지불하고 받도록 공직자 윤리 강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부터 말단 직원까지 모든 공무원은 매년 빚이 없다는 '무부채 선언'과 함께 자신과 배우자·미성년 자녀의 재산과 투자액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때문에 싱가포르 공직사회는 어느 나라보다 투명한 것으로 유명하다. 공무원들의 청렴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바로 싱가포르에 모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무원들이 업자들의 집요한 설계·구조 변경 로비와 뇌물 공세를 물리치고, 모든 하수구의 경사를 물이 괴지 않게끔 절묘하게 조절해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연봉수준을 높였다. 2007년 기준으로 장관들의 평균 연봉이 120만 싱가포르달러(약 7억 3,000만 원)로 세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 공무원들을 흔히 말하는 '철밥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매년 GDP(국내총생산) 성장률과 개인별 실적에 따른 연봉제를 시행해 감봉을 하기도 한다. 즉,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

3



4



면서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부정부패를 멀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시민을 배려하는 정부와 성숙한 시민의식
정부의 강력한 의지 덕분에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수준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물론 강제성을 띠고 있지만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침을 뱉는 이들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역시나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에게도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했다.

우선 위법행위를 했을 때는 그에 응하는 처벌을 내린다. 특히 가볍게 다뤄질 경범죄에 대해서도 선처란 없다. 금연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1천 싱가포르 달러(약 87만 원)를 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범죄가 존재하고, 이 때문에 시민은 법을 잘 지키며 한층 시민의식이 성숙해질 수 있었다.

더불어 싱가포르 정부는 시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사선으로 배치된 버스정류장의 좌석들만 봐도 그렇다. 도로를 향해 일직선으로 좌석이 놓여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목을 길게 빼고 불편하게 고개를 돌려 버스를 바라보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다. 또한 곳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도록 했다. 특히 시민에게 정부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건물의 엘리베이터마다 국회의원, 주민자치위원 사진과 연락처를 붙여 놓아 시민의 알 권리를 지켜주고 있다.



2. 리관유 초대 총리로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이자 청렴국가를 만든 주인공
3.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내야하는 규제의 나라 싱가포르의 여러 규제들 4. 싱가포르 인구의 대부분이 화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차이나타운이 조성되어 있다 5. 싱가포르는 쓰레기통을 곳곳에 설치해 시민들이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를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하며 청렴한 나라, 여행하기 좋은 나라, 친환경 도시 등의 다양한 타이틀을 얻었지만 지나친 국가 개입이 상대적으로 약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싱가포르에서는 가족계획부터 해외부동산 투자까지 사회 전 분야에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싱가포르가 추구하는 국가자본주의 체제는 의사결정의 신속성,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반면에 개인의 자율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약점도 가지고 있다.

주싱가포르한국대사관의 임상준 홍보관은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아주 작은 USB 하나를 받더라도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나라가 싱가포르죠. 이러한 행동규제 때문에 부정부패 발생이 낮은 편이지만 이를 실천하려는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높이 평가해야하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말했다.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정주 박사도 “권력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지만 유전무죄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실천하고 있어요”라며 현재까지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게 된 원인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처럼 싱가포르가 청렴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척결의지가 상호 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것이 아닐까. 🌍

“대인 교통사고에서 쌍방과실의 경우 운전자의 벌점을 2분의 1로 줄여주지 않나요?”

도로 무단횡단으로 인한 차량 교통사고에서 보행자인 피해자의 과실 인정

**1년 간 운전자의 벌점 누산점수 12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취소**

예상치 못한 면허취소 처분을 당한 A씨. 그 시작은 불과 열흘 전 일이다. 경북 포항에 사는 A씨는 2008년 10월 2일 자신의 승합차량을 타고 지나다가 마침 시장에 장을 보러 가기 위해 횡단보도가 아닌 차로로 길을 건너던 B씨(66세)와 충돌하게 된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중상에 해당하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상 1인의 인적피해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 야기로 인해 A씨는 안전의무위반 10점, 더하기 중상 1인 15점 등 총 25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이어 A씨는 열흘 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이날

또 다시 벌점 10점을 부과 받게 되었다. 결국 인적피해 사고 벌점에 더해 1년간의 벌점 누산점수가 125점에 달한 A씨에게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아닌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졌다.(운전자 음주측정 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 10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이, 0.1% 이상이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다.)

면허가 취소되는 데에까지 이르자 A씨는 자신에게 부과된 해당 벌점들에 대한 내용과 법규 등을 다시 한 번 찬찬히 살펴보게 되었다. 결국 쌍방과실로 인한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 A씨에게 부과된 벌점 25점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로 인한 경상북도지방경찰청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도로교통법」은 ‘1년간 운전자의 벌점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면 해당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벌점의 산정방법이, 사실은 관계법령이 정한 수치를 넘어서는 부당한 것이었고, 그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 라면 운전자의 입장에서선 다분히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쾌한 결정이 내려졌다.

무단 횡단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발생에 크게 기여

여기서 당시의 사건기록 중 A씨의 주장을 입증하는 대목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자. 먼저 경찰의 교통사고실황조사서는 사고유발요인으로 ‘(A씨의) 전방주시 태만, (B씨의) 보행자 부주의’라 기재하고 있었다. 피해자인 B씨 또한 직접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통해 사건 당일 B씨가 횡단보도 신호등 앞에 정지해 있던 차량들의 뒤쪽, 즉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길을 건넌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3.정지처분 개별기준 나.목에 의하면 ‘인적피해교통사고 중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중상 사고를 일으킨 경우 중상 1명마다 벌점 15점을 부과하고, (중략) 자동차 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본래 정해진 형벌보다 가벼운 형벌에 처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피해자 B씨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고지점이 횡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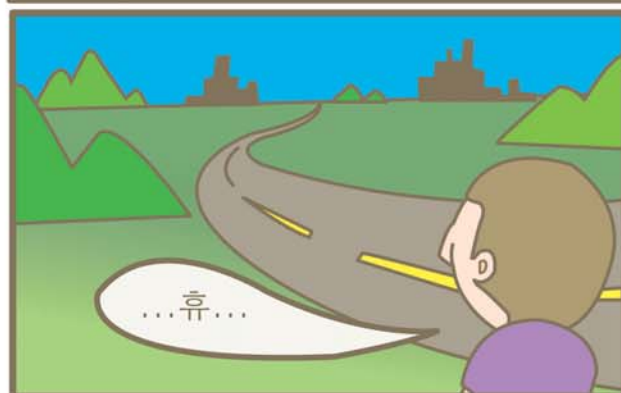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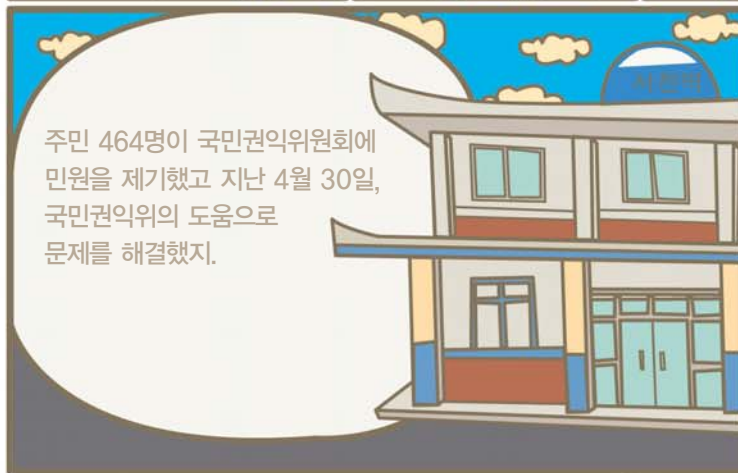
보도가 설치된 장소의 부근으로 △위 사고발생 당시 피해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횡단보도가 아닌 지점에서 무리하게 도로 무단횡단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대편 차선의 보도·차도 구분 지역에 차단용 횡스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A씨로서는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에도 A씨가 받은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A씨가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못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과 △B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면서 진행하는 차량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건넌 과실이 결합해 발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A씨의 위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은 앞서 본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벌점기준 15점을 2분의 1로 감경한 7.5점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A씨의 1년간 벌점 누산점수는 117.5점(=안전운전 의무위반 10점+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7.5점+주취상태의 운전 100점)이라 할 것이므로, A씨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과했음을 이유로 한 경상북도지방경찰청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



—(4) 충청남도 서천역 진입 도로 개설





국민고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해드립니다.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에 문을 두드리세요!



우리 아빠는요, **국민을 위해 일**을 한대요!

국민권익위원회 견학 및 영화상영 성황리에 치러

끊임없이 밀려들어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다 싶을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어떻게 보면 삭막하다 느낄 수 있는 국민권익위가 원일인지 아이들의 목소리로 가득하다. 다름아닌 지난 6월 25일, 국민권익위가 직원의 가족들을 초청한 것. 아이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좋은 추억거리를 남겨준 행사 속으로 들어가 보자.



2



3



4

1.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방문하여 신고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2. 부모님이 일하는 부서에서 맛있는 피자를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3. 이날 행사는 110 정부민원 안내콜센터, 국민신문고가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4.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을 위해 국민 권익위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있을 때 어디에 전화를 하면 될까요?”

“110이요~!”

뜨거운 별이 내리쬘던 지난 6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 신관 10층 대강의실은 30~40여 명의 아이들로 소란스럽다. 그러나 행사가 시작되자 떠돌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집중하기 시작하고 진행자가 질문을 하자 한 목소리로 답을 외친다.

이곳에 온 사람들은 모두 국민권익위 직원의 가족들이다. 이날은 국민권익위가 조직융합과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들의 가족을 초청해 ‘위원회 견학 및 영화상영’ 자리를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정화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가정이 화목하면 직원들의 능률이 올라가고, 직원들의 능률이 올라가면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복한 일터가꾸기’와 ‘상상의 창문열기’란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고 있다. ‘행복한 일터가꾸기’란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하고, 이날만큼은 전 직원

이 정시 퇴근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상상의 창문열기’는 상상력을 키워 업무 능력을 높이자는 취지하에 ‘불필요한 일 줄이기’, ‘독서낭독회’, ‘영화관람’을 실시한 것이다.

6월 넷째 주 목요일이었던 6월 25일은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했던 날로, 여기에 ‘가족행사’ 이벤트까지 곁들여 직원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국민권익위를 보고, 듣고, 느끼고!

이번 행사는 국민신문고 시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방문, 가족이 근무하는 사무실 견학, 영화감상 순으로 진행되었다.

아빠 방대성 씨(기획재정담당관실)의 초청으로 과천에서 왔다는 방우진(10세) 어린이는 아빠의 소매를 붙들고 연신 질문을 퍼붓는다. “아빠, 여기서 아빠가 하는 일이 뭐예요?” “110은 뭐예요? 왜 번호가 110이에요?” “어떨 때 110을 눌러야 하죠?”

그러자 방대성 씨는 아들의 질문에 차근차근 설명해준다. 방대성 씨 뿐만 아니라 이 행사에 참여한 다른 가족의 모습도 마찬가지였다.

“국민권익위가 무슨 일을 하고 국민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들었어요. 우진이를 보니까 데려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가 무엇인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췄고,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실제로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이용하는 실례를 들어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냈다. 특히 콜센터를 직접 방문해 어떤 식으로 민원 신고가 이루어지는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콜센터까지 방문한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님이 일하는 부서에 가서 맛있는 피자를 먹으며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국민권익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난 후,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던가. 국민권익위를 찾아와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국민권익위의 필요성을 느낀 아이들. 엄마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국민권익위를 나선 아이들은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것이다. 우리 아빠 또는 엄마는 국민들의 억울함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

하나에서 열까지,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다

어느 날, 변호사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며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 들어본 기관이었기 때문에 변호사의 제의가 어리둥절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임성진 조사관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사관님은 제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며 저와 함께 예산군청을 찾아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사관님은 예산군에 내려가기 전 여러 자료와 정보를 수집 하였고 조사관님과 만난 지 한 달여 만에 예산군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차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조사관님의 친절에 우리 부부는 조사관님과 한 식구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조사관님은 군청 직원과 동네 이장 앞에서 지금까지 모은 자료를 나열하며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문제가 됐던 도로가 '폐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폐도로가 결정이 되면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대체도로도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까지 귀를 닫고 있었던 군청은 잘못을 인정하며 군청 측에서 '대체도로'를 만들어 주겠다고 필요한데, 때마침 우리 땅 주변에 있는 공장 땅이 대체도로로 만들기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공장 토지 주인에게 땅을 달라고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임성진 조사관님의 역할은 여기서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조사관님은 자신이 일의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겠다며 예산군에서 올라온 다음 날 토지 주인을 찾아가 우리의 사정을 알려주고 토지를 예산군에 기부체납해 줄 것을 설득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든든하던지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다행히 그 토지 주인은 우리의 사정을 이해해주고 흔쾌히 기부체납을 약속했습니다. 4년 동안 가슴앓이를 하던 일들이 한순간에 해결된 순간이었습니다. 도로를 언제부터 만들 것인지, 어떻게 공사가 진행될 것인지 등 자잘한 문제가 남아 있지만 조만간 잘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임성진 조사관님의 배려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를 한 가족처럼 여겨주시고 자신의 일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임성진 조사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올립니다. 조사관님과 같은 분이 계시기에 평소 접하기 힘든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와 같이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사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

김영오(가명) 드림

고 마 위 요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으로 민원을 해결하셨던 분들의 가슴 따뜻한 사연을 우편이나 메일로 보내주세요.

우편 :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81 임광빌딩 신관 홍보담당관실 <국민권익> 담당자 앞 e-mail : soljy@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각지에서 물려오는 다양한 민원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문화관광체육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 각 정부 부처의 직원들을 파견받고 있다. 이번 ‘기분좋은 만남’의 주인공인 임성진 조사관은 행정문화교육민원과에서 고충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청 소속으로 감사부서에서 10년 정도 근무하면서 서울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왔습니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로 파견되었고, 근 1년 동안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의 토지와 관련한 민원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관찰력과 추리력으로

문제 해결

2009년 4월, 임성진 조사관 앞으로 하나의 민원이 들어왔다. 민원인은 4년 전 충청남도 예산군에 있는 토지를 지적도(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을 나타내는 평면 지도)만 보고 구입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 지적도와 너무나 다르게 되어 있었다.

“지적도에는 토지에 진입하는 도로가 있는데 실제로 가보니 그 부분은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밭이었고, 타인이 운영하는 공장 출입문을 지나야지만 토지에 갈수 있었죠. 그런데 그것도 폐쇄를 하는 바람에 민원인은 예산군청과 도청에 지적도처럼 길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미 그곳은 폐도로가 되었다’라는 답변만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결국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출한 것이죠.”

임성진 조사관이 가장 우려했던 점은 ‘4년 동안 민원을 제기한 곳에서 제대로 된 협조를 받지 못한

민원인이 얼마만큼 자신을 믿고 협조를 할까’ 하는 것이었다. 민원해결은 민원인의 ‘협조’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민원인의 협조는 적극적이었다.

“민원인에게는 측량도면과 현황사진을 접목하여 만든 서류가 있었는데 그것만 봐도 현장을 훤히 파악할 수 있더군요. 그 자료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우선 군청과 도청은 ‘폐도로’가 되었기 때문에 길을 만들어 줄 수 없다고 했지만 폐도로를 지정하려면 반드시 ‘대체도로’를 만들어줘야 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대체도로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거기다가 폐도로로 정하기 위한 용도폐지 절차를 정식으로 밟은 것도 아니었죠. 그들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도로’라고 주장했으니까요.”

문제해결의 ‘단서’를 찾은 임성진 조사관은 민원인과 함께 예산군에 내려가 예산군청, 도청에서 범한 오류를 지적했고 결국 대체도로를 만들어주기로 합의를 했다. 4년 동안 끌었던 사건이 단 한 달 만에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이는 10년 동안 쌓아온 임성진 조사관의 날카로운 관찰력과 추리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제가 하는 일은 법, 행정, 생활상식 등 다양한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토지’라고 해서 토지와 관련된 법만 공부해서는 안 되죠. 민원인은 저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사건에 대한 직감력을 키워야 해요. 공부는 학창시절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웃음).”

임성진 조사관은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낡고 두꺼운 책들을 가리키며 말한다. 이 자료들은 서울시청 감사부서에서 일할 때부터 함께 해 온 그의 동료라 할 수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에 한 시간 이상씩 책을 보며 지식을 쌓고 있다.

이처럼 그는 보이지 않는 노력으로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리고 작은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는 세심한 배려로 ‘조사관과 민원인’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으로서 민원인에게 다가가려 하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원 해결의 마침표라 믿으면서.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민원과 국민권익과 임성진 조사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민원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민원 성격에 따른 민원처리기관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국민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기관이지만 한 분야가 아니라 문화,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있다. 또한 좀 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문화관광체육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 다른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을 파견받아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임성진 조사관은 서울시청 소속으로 지난해 9월부터 국민권익위에서 토지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국방부 ‘도끼 할머니’의 잃어버린 땅을 찾아서

글 | 국민권익위원회 문무철 조사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입사하기 전 현역 군인으로 국방부에 근무할 때 일이다. 어디선가 나타나신 한 할머니가 국방부 민원실 실무자를 죽이겠다고 도끼를 휘두르며 집기를 훼손해 경찰에 체포된 일이 있었다. 이 일로 그 할머니는 일명 ‘국방부 도끼 할머니’로 불리게 되었고, 이 사건은 국방부 내에서도 유명한 일화로 내려오고 있다.

그 후 몇 년이 흐른 뒤, 나는 우리 위원회에 국방 분야 민원 조사관으로 입사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방문상담을 위해 상담센터로 향하는 길이었다. 한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계셨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친 순간 ‘앗, 국방부 도끼할머니!’ 라고 소리칠 뻔했다. ‘설마, 도끼 할머니 일까?’ 라며 할머니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는데, 내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할머니는 “공무원은 다 똑같은 한 통속들이야”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혹시나 우리 위원회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셨는지 반신반의한 듯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으셨다.

할머니는 경기도 이천에서 쌀농사를 지으며 장사를 하시던 분으로, 그 당시에는 땅도 있고 재력도 있었다고 하셨다. 하지만 육군 정보학교가 이천으로 이전하면서 할머니 소유의 땅이 강제로 수용되었고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다.

할머니는 ‘손해 본 재산을 조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20여 년간 수십 차례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할 수 없었고 결국 도끼를 휘두르고 징역살이까지 하게 되었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모습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처음 일명 도끼 할머니의 민원을 접수했을 때 국방부처럼 불상사(?)를 당하지 않으려면 꼼꼼하게 조사해서 할머니의 잃어버린 재산을 조금이라도 찾아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혹시 그럴 수 없다면 할머니의 토지 수용이 위법·부당하지 않았고 불합리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 후 이를 할머니께 이해서 쳐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결심했다.

국민권익위, 민원의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

우선 국방부 실무자에게서 할머니의 과거 민원에 대한 정보를 확보했다. 국방부 실무자는 '이 토지를 수용할 당시 등기상의 명의자가 할머니가 아니라면서 할머니는 수용 토지에 대한 그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이야기했다. 국방부 실무자의 말처럼 토지의 등기를 확인해 보니 수용당시 토지의 소유권자는 할머니가 아니었다. 할머니는 당시 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 놓았던 것이다.

나는 할머니가 수용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임을 입증한 뒤, 이 토지가 현재 수용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국방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토지 매수와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았다. A4 용지 박스로 족히 1박스는 되는 분량이었다. 문서의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던 중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토지의 소유권 문제였다. 1994년 6월 22일, 할머니 토지는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그 당시에 할머니는 토지의 등기상 명의자와 토지의 소유권 이전 소송을 하고 계셨다. 할머니는 토지가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된 1994년 6월로부터 4개월이 지난 1994년 10월 28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토지의 사실상 소유권자로 확인되었고, 국방부 역시 할머니 명의로 토지 매수대금을 공탁(돈이나 물건을 법원에 제공하고 그 보관을 위탁함)하고 할머니에게 공탁수령 통지를 한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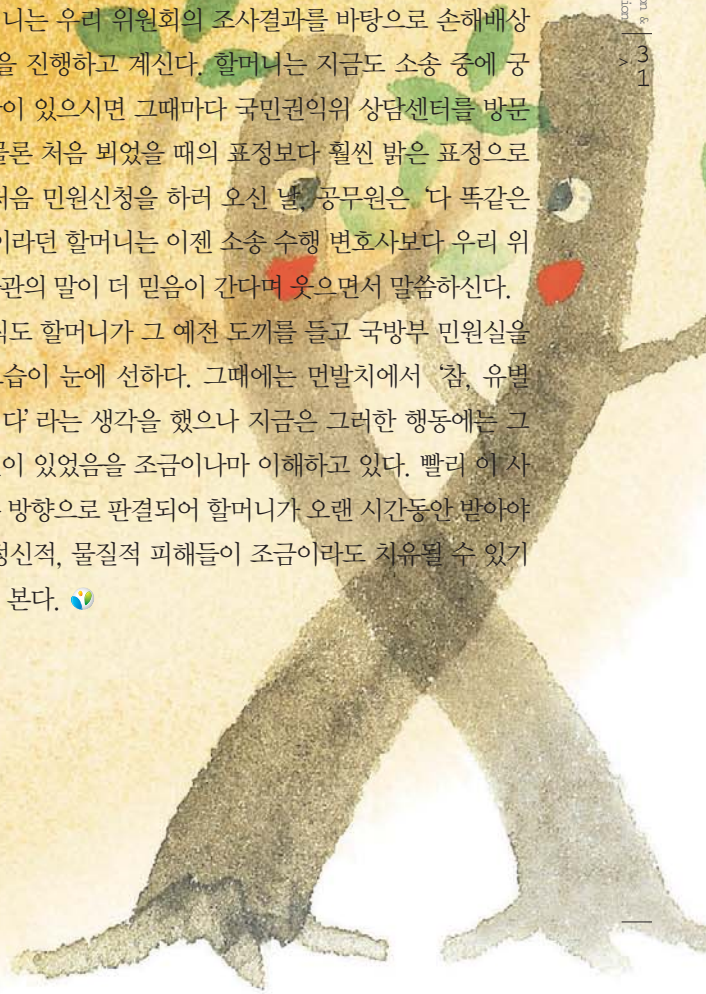
다. 즉, 국방부 역시 이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권자가 할머니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두 번째는 현재 수용토지의 군사상 사용용도였다. 당시 할머니의 토지는 '군 아파트 신축' 부지 목적으로 수용되었으나, 현지에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니 토지의 일부에만 '군 부대의 독신자 숙소(BOQ)'가 건축되어 있고 나머지 토지에는 군에서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현행법에 의하면 수용 목적 외 사용하고 있는 나머지 토지는 할머니에게 돌려줘야 했으나, 국방부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국방부는 손해 배상할 것'으로 의견 표명

우리 위원회의 법률검토와 심의·의결 과정 등을 거쳐 '나머지 토지를 할머니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국방부에 '할머니에게 손해배상 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배상을 할 수 있다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할머니는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계신다. 할머니는 지금도 소송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마다 국민권익위 상담센터를 방문하신다. 물론 처음 뵈었을 때의 표정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말이다. 처음 민원신청을 하러 오신 날, 공무원은 '다 똑같은 한 통속'이라던 할머니는 이제 소송 수행 변호사보다 우리 위원회 조사관의 말이 더 믿음이 간다며 웃으면서 말씀하신다. 사실, 아직도 할머니가 그 예전 도끼를 들고 국방부 민원실을 부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때에는 먼발치에서 '참, 유별난 할머니다'라는 생각을 했으나 지금은 그러한 행동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있다. 빨리 이 사건이 좋은 방향으로 판결되어 할머니가 오랜 시간동안 받아야만 했던 정신적, 물질적 피해들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



通

청렴
예찬

2008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민(民)과 관(官)이 하나 되어 청렴한 교육현장을 만든다

2008년 부패방지시책평가 시·도교육청 종합 1위 대전교육청



1

옛 집을 잠시 떠올려보자. 집안에는 가족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 지침인 덕목을 써놓은 가훈이 딱 하니 자리 잡고 있다. 대전교육청도 그랬다. 교직원들이 지켜야할 덕목인 '2009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방향'이 적힌 3m 높이의 현판이 교육청 입구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것은 대전교육청이 지켜야할 윤리이자 으뜸으로 여기는 덕목이 바로 '청렴'인 것이다. 그래서일까. 청렴하고 깨끗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힘쓰는 대전교육청은 2007년에 이어 '2008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16개 시·도교육청 중 종합 1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최근에는 이러한 높은 청렴의식을 바탕으로 2009년도 시·도교육청종합평가에서 종합 2위의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그들의 부패방지활동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2



3

1. 대전교육청이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발돋움 하는데 일조를 한 공보감사담당관실 직원들 2. 2008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시·도교육청 종합 1위를 차지한 대전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 양건 위원장으로 부터 국무총리표창장을 받고 있다 3. 민·관이 함께하는 시민감사관 위촉·운영으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청렴의식으로 하나 된 대전교육청 사람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윗사람의 행실이 깨끗해야 아랫사람의 행실도 깨끗해진다는 뜻인데 마치 대전교육청을 두고 표현한 말이 아닌가 싶다. 대전교육청이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비결을 묻는다면 단연 ‘교육현장에서는 그 어떤 부패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교육감의 청렴의지를 꼽을 것이다.

대전교육청 김신호 교육감은 교육현장에서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을 강조하면서도 부조리 없는 깨끗한 교육현장 조성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TV, 라디오, 인터넷 방송 온·오프라인을 통해 청렴의지를 전달하고 반부패 계획, 활동에 대한 직원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김 교육감은 자신의 취임식 날 축하화분 사절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렇듯 대전교육청은 교육감의 청렴의지부터 남달랐다.

청렴함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 때문일까. 깨끗한 대전교육청과 대전의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직원들 또한 청렴의식이 대단하다. 감사팀과 공보팀, 청렴팀으로 구성된 공보감사담당관실은 다른 공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부패를 감시하기도 하지만, 그 누구보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직원들이 먼저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있다.

“지난 3월, 장학사가 우리 부서로 발령받았고 외부에서 누군가 그의 발령을 축하하는 화분을 보내왔어요. 이때 감사실의 김중희 감사관은 ‘혹시 직무 관계자가 보낸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으로 그 장학사 모르게 화분을 보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신분을 확인했죠. 보낸 사람은 그 장학사의 조카였어요. 물론 우리 직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치과의사였구요.” 공보감사담당관실의 김영섭 사무관은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같이 일하는 사람을 의심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의 청렴함에 대해 논하기 전, 자신들이 먼저 청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보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잘 보여주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라고 말한다.

민(民)과 관(官)이 함께 하는 시민감사관제

대전교육청의 청렴정책의 가장 큰 강점은 시민들과 함께 감사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대전교육청은 2008년 전국 최초로 ‘시민감사관제’를 시행했다. ‘시민감사관제’는 시민들을 교육청 자체 감사와 조사현장의 감사요원으로 참여시키는 열린 감사로 투명성을 높이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데 뜻을 두고 있다.

시민감사관들은 교육감이 요청하는 감사과정에 참여하며 공무원의 비리나 부조리, 불친절 행위를 제보할 수 있고,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나 관행 등의 시정을 건의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교육행정 발전에 필요 사항들을 건의할 수도 있다.



4. 대전교육청은 2008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시·도교육청 종합1위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5. 회의 중인 공보감사담당관실 직원들

대전시민들의 대표인 시민감사관은 아무나 될 수 없다. 이들은 시민단체 또는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 정의감 및 신고정신이 투철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6급 장학사 이상 감사담당공무원으로 3년 이상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처럼 시민감사관의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청렴정책을 이해해 더 질 높은 감사활동을 펼치기 위해서이다.

대전교육청은 시민감사제의 하나로 대전 구즉초등학교와 대전 상대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민간 명예감독관을 위촉함으로써 다시 한 번 청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민간 명예감독관은 시민사회단체나 지역동사무소 등에서 추천받아 위촉된 시민들로 교육청 공무원과 함께 공사현장에 직접 참여해 공사과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자의 불편이나 불만사항 등을 건의함으로써 학교 공사감독에 대한 민간감시자 역할을 수행했다.

아주 특별한 서비스 ‘찾아가는 청렴교육’

대전교육청은 교육기관답게 ‘청렴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찾아가는 청렴교육, 사이버 청렴교육, 전문가 초청교육 등 청렴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교직원들의 청렴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청렴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청렴교육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은 ‘찾아가는 청렴교육’이다. 학교에서 청렴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전문강사’ 과정을 이수한 전문 강사가 직접 그 학교로 찾아가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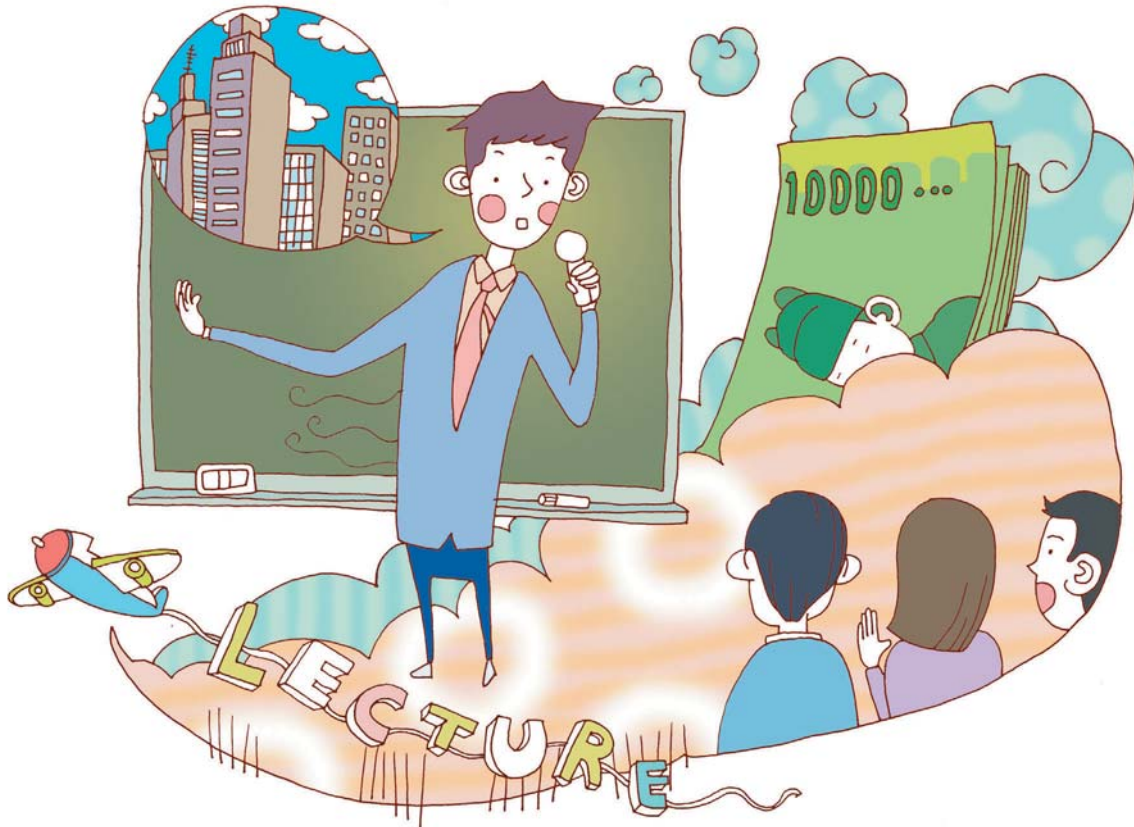
로그램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반부패 청렴마인드 제고가 요구되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인기가 있다. 현재 김수인 수석감사관 외 3명의 감사관이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2009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방향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개정사항, 불법찬조금 근절 및 강화된 음주운전 처분기준 등 공직자로서 꼭 지켜야 할 윤리기준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어느 공직자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사람들이 교육공무원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청렴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저희의 활동으로 많은 분이 공직자로서의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정말 보람된 일이지요. 앞으로도 청렴의식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시도할 것 입니다” 라고 말하는 김수인 수석감사관이다.

대전교육청의 청렴교육에 관한 욕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장을 포함하여 본청 직원과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이버 교육은 청렴정책 전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공직자로서의 반부패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청렴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4,500명의 교직원들이 교육받을 예정이며 현재 595명이 이수했다.

사실, 대전교육청의 청렴정책들은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다. 이러한 청렴정책들은 모두 ‘깨끗한 교육현장’을 만들겠다는 대전교육청 교직원들의 청렴의지에 뿌리를 두고 있다. 3년 연속 부패방지시책평가 우수기관이 되겠다는 이들의 눈빛에서 대전교육청의 깨끗한 미래를 기대해 본다. 🌈

외부 강의할 때 신고 잊지 마세요!



G시청에 근무하는 도시건축가인 공무원 H씨.

도시건축 전문가로 유명한 그는 시청 내에서도 그 능력을 높이 인정받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유관기관 혹은 외부에서도 도시건축 관련 세미나 혹은 강의에서 모두들 그를 강사로 초빙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제의에도 H씨는 외부 강의·회의 등을 마다했다. 공무원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일일이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대학교 선배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리고 H씨는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 전화의 내용은 B도시건축연구단체의 연구보고서를 자신을 대신해서 감수해달라는 부탁이었다. H씨는 잠시 고민했지만 외부 강의·회의가 아닌 연구보고서이기 때문에 감수를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 감수 부탁을 승낙했다. 그런데 그는 감수를 해주고 사례로 받은 감수료를 공무원행동강령(제15조)에 따라 사전 신고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결국 그는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되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感, 여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이글이글 떠오르는 여름날의 열기를 하루하루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한참을 손꼽아 기다려 왔던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휴가’가 다가오기 때문이 아닐까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뻘뻘했던 일상으로부터 한 걸음 달아나는 시간, 여름 휴가….

여러분은 어떤 휴가를 계획하고 있으세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파란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부는 해변가나

차가운 계곡물과 시원한 그늘이 있는 숲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삶이 한결 즐거워질 것입니다.

- 38 | 여행의 재발견
- 42 | 문화로 보는 세상
- 44 | 돈버는 방법
- 46 | 생활법률110

感

여행의
재발견

한산도 앞바다에서 울려 퍼진 칼의 노래

청렴결백한 성웅 이순신의 자취를 따라서, **통영**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멸과 치욕을 감내하며 밤마다 홀로 수루에 앉아 노래를 불렀던 한 사내. 그를 우리는 충무공이라 부른다. 한산도에서 접전을 펼치며 한산도대첩을 이끌어낸 충무공 이순신. 그가 이 시대에 던지는 화두가 새삼 남다르게 다가온다. 그는 당대 최고의 장군이요, 청렴을 목숨으로 삼았던 관료요, 수국(水國)을 꿈꾸었던 경제인이었다. 그의 향이 깃든 경상남도 통영으로 그 자취를 따라가 보자.



한산대첩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한산도대첩비

이순신 장군은 문무를 두루 갖춘 장수이자 청렴결백한 관료였다. 그런 충무공의 강직한 성품 덕분에 관직생활은 순탄하지 못했다. 다양한 일화가 많은데, 그중 자신과 인연이 깊은 한산도에서도 충무공은 유명한 일화를 남겼다. 당시 일본 수군 장수 중 고니시 유키나카가 이순신 장군의 명성에 두려움을 느끼고 부하를 시켜 조총과 긴 칼을 선물로 보내왔다. 그것을 본 충무공은 단호히 물리치며 “나는 임진년부터 셀 수 없이 적을 죽여서 얻은 총칼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고니시는 충무공이 더 큰 것을 원하는 줄 알고 명나라 장수 유정을 통해 다시 은과 술, 고기를 보내왔다. 충무공은 이것을 보고 매우 화가 나서 “왜놈들은 중국에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당신이 도리어 그들에게 농락당해 뇌물을 받으려고 하다니 이치에 맞는 일입니까? 어찌 장수 된 자가 할 짓입니까?”라고 했다.

이처럼 이순신 장군의 성품은 청렴과 강직으로 대변 할 수 있겠다. 아마도 청렴하고 강직했던 품성이 없었다면 왜군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

한산대첩, 그의 바닷길에 오르다

‘통영’ 하면 이순신 장군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그도 그럴 것이 통영의 옛이름인 ‘충무’도 충무공에서 따왔고, 통영도 충무공이 활약했던 삼도수군통제영의 줄임말이니 통영은 충무공의 도시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중에서도 통영의 수많은 섬 중에 뱃길로 20여 분을 달려가면 만날 수 있는 한산도를 빼놓을 수 없다. 한산도는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 하나인 한산대첩(1592년 7월 8일)의 전적지이자 충무공이 삼도수군통제영을 지낸 곳이니 말이다.

“한산도 가려면 어떻게 가야하나요? 그곳에 가면 제승당이 먼가요?”

“아~ 서울에서 왔나보네. 충무공 찾아가는교? 저서 배타고 가야제.”

“그곳에 많이들 가나 봐요.”

“하르. 말하며 뭐해. 타지서 오는 사람 반은 충무공이 보러가는거제. 통영하면 충무공이제.”

그렇게 어시장 할머니 말씀을 따라 뱃길에 올랐다. 통영여객터미널에서 카페리를 타고 한산도로 향하는 사이, 배는 남해 특유의 호수처럼 잔잔한 물살 위를 미끄러지듯 유명한다. 한때 불화살과 포탄이 빗발치고 함선이 불에 휩싸이는 피바다였던 사실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바다는 평화롭기만 하다. 그렇게 20여 분이 지났을 까 저 멀리 거북등대가 보인다. 당장이라도 전진할 것만 같은 거북등대를 지나 선착장에 당도했다. 선착장에서 오른쪽에 있는 제승당으로 향하는 길은 그야말

1. 관광객들이 제승당 내부의 수루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한산대첩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거북 등대가 한산도 앞바다에 떠있다



로 산책로로서 그만이다. 10여 분 동안 삼림욕을 마치고 나면 제승당을 향하는 대첩문이 나온다. 대첩문을 지나면 제승당 경내로 들어선다. 지금의 제승당 일대(사적 제113호)가 1593년 7월에서 1597년 2월까지 통제영이 자리했던 곳으로 충무공이 휘하 장수들과 함께 전략회의를 했다고 한다. 제승당 왼편으로 내려가면 한산정이 나온다. 한산정은 충무공이 부하들과 활을 쏘았던 정자다. 현지 가이드는 한산정은 충무공의 배려로 만들어졌다고 전한다.

“당시 조선 수군이 명나라 군대를 먹이느라 죽 한공기로 연명하던 시기였기에 충무공이 굶주리는 부하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모의 전투훈련을 줄이기 위해 활터를 짓고 연습한 곳이지요. 이렇듯 충무공은 위풍당당한 나라의 장군이기에 전에 따뜻함과 배려심이 깊은 한 사람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제승당 오른편에는 수루가 보인다. 고단한 함대가 모두 잠든 밤, 닥쳐올 전란의 운명 앞에 번민하며 몸을 뒤적이다 이곳에 올라 큰 칼을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던 충무공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제승당 대각선으로 고개를 돌리면 충무공을 모신 사당 충무사가 있다. 정면 영정 속의 충무공이 그윽한 눈으로 참배객을 맞는다. 한 손에 등채(지휘봉)를 들고 가슴에는 병부랑 주머니를 찬 관복 차림인 충무공을 보고 있자니 왜군에 맞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제승당으로 나와 선착장으로 돌아가 좌측으로 가다보면 문어포에서 한산대첩기념비를 만날 수 있다. 선착장에서 봉암해수욕장 방면으로 차로 15분가량 달리다 우회전해 두억포 방면으로 가다 보면 오솔길이 나온다. 그것을 따라 10여 분 걸으면 거북선 모양 좌대에 20m 높이의 한산대첩기념비가 서 있다. 기념비 정상에 오르면 탁 트인 넓은 바다가 펼쳐지고 미륵도와 화도 사이 왼편으로 보이는 바다가 견내량의 왜군을 유인해 학익진으로 무찌르던 곳이다. 충무공은 거북선을 앞세운 학

익진 전법으로 73척의 왜선 중 47척을 침몰시키고 12척을 나포하는 혁혁한 전과를 거둔다. 또한 54척의 조선 수군 함대는 단 한 척도 상하지 않았다.

한산도를 빠져나오는 사이 현지 가이드는 “통영 내에서 이순신공원에서 이순신 동상, 충무공의 사당 충렬사 등, 통영 내에 이순신 장군 흔적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니, 꼭 둘러보세요”라며 통영사람들의 충무공 사랑을 짐작케 한다. 이렇듯 통영에서는 이순신 장군을 기리며, 한산도는 마치 보물섬처럼 곳곳에 충무공의 흔적이 숨어 있다. 보물을 찾듯 충무공의 흔적을 쫓다 보면 왜적과 맞서 퍼낸 지혜에 다시 한 번 감탄사를 내뱉게 된다. 🌈

찾아가는 길

통영과 한산도에서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 승용차 이용 시

남해고속도로→ 서마산C→14번 국도→통영

▶ 버스 이용 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이용 매 30분~1시간 사이에 운행

▶ 통영에서 한산도 가는 길

통영여객선터미널(055-642-0116)에서 한산도행 뉴파라다이스호 배길로 30분 거리며 여객선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시 정각에 운행한다.

▶ 한산도 약도



역사와 예술, 문화가 있는 여행 코스 열심히 일한 그대 '통영으로 오라'

섬과 섬으로 이루어진 통영.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이, 세상사 잡념과 시름은 사라지고 여유와 행복이 채워지니. 천혜의 자연과 역사, 문화가 숨 쉬는 통영에서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두 눈으로 멋진 풍광을 확인해보자.



이순신 장군의 숨결이 서려있는 제승당

#1. 역사의 흔적의 통영

한산도는 통영여객터미널에서 카페리를 타고 20여 분 쯤 남해 특유의 호수처럼 잔잔한 물살 위를 유영하다 보면 통영항이 희미해질 무렵, 한산도에 다다를 수 있다. 선착장에서 내려서 오른편으로 산책길을 따라서 이순신 장군의 숨결이 서려있는 제승당을 만나게 된다. 지금의 제승당 일대(사적 제113호)가 1593년 7월에서 1597년 2월까지 통제영이 자리했던 곳이다. 제승당은 충무공이 휘하 장수들과 함께 전략회의를 하던 곳이다. 제승당을 나와 다시금 선착장에 돌아가 좌측으로 가다보면 문어포에서 한산대첩기념비를 만날 수 있다. 선착장에서 봉암해수욕장 방면으로 차로 15분가량 달리다 우회전해 두역포 방면으로 가다 보면 오솔길이 나온다. 그 길을 10여 분 걸으면 거북선 모양

좌대에 20m 높이의 한산대첩기념비가 서 있다. 그곳이 역사적인 한산대첩의 현장이다.

홈페이지 www.tychungryolsa.or.kr **제승당 관람시간** 하계(09:00~18:00) / 동계(09:00~17:00) **문의** 055-645-3229

#2. 예술가의 혼이 서린 통영

통영은 칼과 현이 공존하는 도시다. 이순신이 한산대첩을 이룩한 구국의 역사 현장이기도 하지만 걸출한 예술인을 대거 배출한 예향의 도시이다. 박경리를 비롯해 유치환, 김춘수, 윤이상 등 그 이름만 거론해도 알 수 있는 당대 최고의 예인들이 탄생했다. 박경리 선생의 생가가 있는 문화동 달동네 거리를 시작으로 청마 유치환 선생의 청마거리, 박경리 선생의 묘소가 있는 미륵산까지.

걸어서 떠나는 역사·문화기행 코스 강구안 거북선 앞 문화마당→김춘수 '꽃' 시바→시조시인 김상옥 생가 및 초정거리→청마 유치환 '향수' 시바→청마우체국(중앙동우체국)→청마거리→통영항도역사관→세병관→충렬사→소설가 박경리 생가→소설 '김약국의 딸들'의 무대인 서문고개→화가 이중섭이 기거했던 곳→중요무형문화재 제64호 두석장 기능보유자 김덕룡 와 제10호 나전장 기능보유자 송주안 살던 집→강구안 거북선 앞 문화마당

문의 055-650-4510



청마 유치환 '향수' 시바



동양 최초의 바다 밑 해저터널 입구

#3. 아름다운 섬 문화, 통영

통영은 특유의 섬 문화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섬이다 보니 비탈 지역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해안도시 특유의 아름다운 정경이 남아있다. 정량동, 문화동, 태평동 일대의 산비탈 마을이 서민들의 오랜 삶터로 남아있다. 재개발을 하기보다는 공공도시프로젝트를 통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며 보존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31년부터 1932년까지 1년 4개월에 걸쳐 만든 동양 최초의 바다 밑 해저터널이 또 하나의 섬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해저터널은 길이 483m, 너비 5m, 높이 3.5m로 양 쪽 바다를 막아 바다 밑을 파서 콘크리트 터널을 만든 것으로 물이 들어오면 배가 다니던 길이었다. 현재는 여전히 섬과 섬을 통과하는 지름길로 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문의 055-650-4510



우리 엄마 얼굴은 조금 까맣요!

다문화 가정 이야기, '선녀에게 날개옷을 돌려줘'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족은 더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 남다른 시선을 보낸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책을 읽어보길 권한다. 다문화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선녀에게 날개옷을 돌려줘'이다. 그림이 많고 글이 별로 없는 동화책이지만 다문화 가족에 대해 고정관념이 있는 어른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농촌 늦깎이 총각들의 국제결혼과 재한 외국인들의 증가로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국제결혼의 사기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고, 재한 외국인들이 낯선 땅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일도 더러 생겨나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차치하고 오늘날 우리 곁에 다문화 가정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2020년이면 19살 미만 농촌인구의 절반은 다문화 가정 출신이라는 연구가 나오기도 했다. 이제 그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어느 한 특정집단으로 다문화 가족을 구분 짓는 자체가 이미 편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심한 색안경 낀 시선이 있기에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선녀에게 날개옷을 돌려줘'는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동화책에 다문화 가정을 등장시켜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 아이들에게서 먼저 그들을 향한 비뚤어진 시선을 거두게 하자는 점에서 첫 번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이 좀 더 넓은 영역에서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두 번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다문화 가정에 대해 '선녀에게 날개옷을 돌려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보자.

“

아빨싸, 엄마가 사라졌다. 그것도 할머니 제삿날. 전날 아빠랑 심하게 다투더니 결국 사단이 났다. 학교에 다니며 공부하고 싶다는 엄마를, 아빠는 양계장 일이 바쁘다며 면박을 줬다. 엉엉 울던 엄마, 결국 집을 나갔다.”

필리핀 엄마를 둔 다문화 가족 이야기!

한국 남성과 이주민 여성들. 그들이 결혼해 이룬 가족을 흔히 '다문화 가족'이라고 부른다. 서로 다른 나라의 문화가 공존하는 가족을 뜻하는 이 말이 현실에서는 주로 동남아 등에서 결혼을 위해 이주해 온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이룬 가족을 뜻하는 단어로 좁혀져 사용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한국으로 시집온 필리핀 출신의 이주민 여성과 그의 가족이 겪는 갈등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특히 좀 더 쉽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선녀와 나무꾼’을 차용해 필리핀 출신 엄마를 둔 초등학교 3학년 여자 아이 남보라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선녀, 그 선녀와 결혼을 하여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무꾼. 하지만 하늘나라를 잊지 못해 날개옷을 입고 떠나는 선녀. 아름답지만 어찌 보면 비극적인 사랑의 결말이다. ‘선녀에게 날개옷을 돌려줘’에서는 선녀를 보라의 엄마이자 필리핀 출신인 이주 노동자 ‘알마’로 연결했다. 동생들이 줄줄이 딸린 데다 홀어머니까지 있는 시골 총각인 아빠에게 시집온 보라의 엄마를 이웃집 할머니는 천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책에는 옛이야기 속 선녀가 땅에 내려와 살면서도 여전히 하늘나라를 그리워했던 것처럼, 낯선 나라에 시집와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선녀와 그녀의 자녀가 겪는 아픔과 고민이 잘 녹아 있다.

보라는 선녀 엄마를 둔 것이 당당해요!

보라도 엄마를 선녀라고 믿는다. 엄마는 까맣긴 하지만 얼굴도 예쁘고, 노래와 춤에도 능하다. 또 엄마한테는 선녀의 날개옷처럼 하늘하늘한 드레스도 있다. 유치원 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선녀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조금씩 커가면서 보라에게 엄마는 자랑스러운 존재가 아닌 원망스러운 존재가 되어 버린다.

한국말이 서툰 엄마는 속담이나 흥내말을 조사해 오라는 숙제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다. 엄마를 닮아 얼굴이 까무잡잡한 자기를 친구들이 ‘깜보라’니, ‘아프리카 가쪽’이니 하며 놀리자 속이 상한다. 보라는 필리핀 음식을 먹어보라는 엄마에게 “싫다니까! 누가 그딴 거 먹는데?”라며 심통을 부린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엄마가 선생님에게 드리려고

쓴 카드를 맞춤법이 엉망이라고 바닥에 팽개쳐 엄마를 속상하게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른 도서관에서 한 권의 그림책을 읽게 되고, 책에서처럼 엄마를 직접 고를 수 있다면 지금의 엄마를 고르지는 않을 거라 생각한다. 엄마에게 점점 더 짜증을 내고, 한글을 잘 모르는 엄마를 내심 무시하면서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내뱉는다. 그러면서도 엄마가 옛이야기 속 선녀처럼 날개옷을 입고 멀리 날아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엄마의 드레스와 여권을 항아리 속에 감추기도 한다.

할머니 제사 전날 아빠와 엄마는 말다툼을 한다.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 공부를 하고 싶다는 엄마에게 양계장이 바쁘니까 조금 더 있다가 하라고 억박지르는 아빠로 인해 급기야 엄마는 집을 나간다.

정신이 번쩍 든 보라는 엄마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 기도가 들렸는지 엄마는 다음 날 돌아왔고 보라는 엄마에게 닫아뒀던 마음의 문을 연다. 엄마 나라의 문화를 더는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엄마에게 배운 필리핀 말을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는 등 오히려 당당해진다. 그렇게 보라는 한 뼉 더 성장한다. 🌈

BOOK
INFO

글 오미경 | 그림 신민재 | 출판 한겨레아이들



사람들은 살면서 누구나 위기를 맞고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그러나 만일 장애인이라면 그 고통과 힘겨움은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할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도 어렵겠지만 곁에서 바라보고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 역시 그 부담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정부는 장애인의 금융거래에 대해서 특별한 세금혜택을 마련했다.

장애인을 위한 금융혜택을 아십니까?

꼭 알아두어야 할 정부의 장애인 금융혜택

보 험 으 로 절 세 효 과 를 특 특 히 누 려 라

장애인에게 가장 절실한 금융상품은 바로 '보험' 일 것이다. 장애인 본인이 다치거나 병에 걸릴 경우 치료비를 감당하기란 일반인들에 비해 몇 배 더 힘겨운 일이다. 그리고 장애인을 부양하던 가족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소득이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일 또한 마찬가지다. 이처럼 발생할지도 모르는 미래의 어려움에 대비해 가입하는 것이 '보험' 이다.

그래서 정부는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장애인이 보험금을 받는 경우 연간 4,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누구이건, 피 보험자가 누구이건 상관없이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장애인이면 된다. 보험상품 가운데에서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연금보험’이다. 특히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더욱 필요하다. 평소에 부모가 보험료를 냈다가 장애인 자녀를 도와줄 부모나 형제가 존재하지 않을 때 혼자 남겨진 장애인이 보험사에서 주는 연금으로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간 4,000만 원까지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4,000만 원 이내에서는 같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도 비장애인보다 최대 1,0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더 받는 효과가 있다.

그 외에도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 근로소득자가 질병보험이나 재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납입한 것에 대해 연간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장애인 전용 보험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신 택 으 로 장 애 인 재 산 을 보 호 하 라

장애인 가족이 있다면 신탁 또한 고려해야 할 유용한 제도다. 직접 재산을 관리하는 데 고충이 있는 지적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신탁을 이용해 물려받은 재산이나 평생 써야할 생활비를 관리받아도 되겠다.

게다가 장애인이 신탁 계약을 한다면 비장애인과 달리 5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를 보자. 장애인이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해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5억 원 한도로 증여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증여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들에 부합해야 한다. 첫째,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이 신탁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여야 한다. 셋째, 신탁기간이 해당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돼 있어야 한다. 또, 신탁기간이 장애인 사망 이전에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 사망 시까지 연장해야 한다.

은 행 에서 세 금 , 수 수 료 를 동 시 절 약 하 라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저축도 장애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재테크 수단이다. 생계형저축은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전혀 묻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고, 세금우대저축은 세금을 덜 내는 상품



으로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격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장애인으로 제한돼 있으며 각각 가입한도가 3,000만 원이다. 가입한 기록이 은행연합회에 등록되므로 한 은행에서 3,000만 원을 가입하면 다른 은행에서 추가로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한 은행에 2,000만 원을 가입하고 남은 한도 내에서 다른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저축은 2010년말까지만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사라지는 제도이므로 서둘러 가입할 것을 권한다. 특히 한꺼번에 3,000만 원 목돈을 맡기는 정기예금은 상관없지만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2010년이 가기 전에 미리 적금을 활용해 3,000만 원 한도를 잡아놓는 것이 좋다.

이밖에 장애인 부양가족이라면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때 장애인 의료비와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길 바란다. 🌈

☞ 장애인 금융혜택

보험료	소득공제	장애인 전용 보험의 경우 추가 공제 가능
연금보험	증여세 면제	4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 보험료 불입자가 누구이든 상관없음
신탁	증여세 면제	5억원 이내 증여세 면제 - 증여세 면제 혜택은 특정 조건(본문 내)에 부합해야 함
은행 상품	생계형 저축 또는 세금우대저축	- 생계형 저축 - 비과세 혜택 - 세금우대저축 - 세금경감 혜택



생활법률
110

여행사 횡포, 제대로 알고 맞서라!

여행 기획 상품 여행사 횡포 대응법

심신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휴가는 달콤한 숨사탕 같다. 늘 여행을 준비하면서 한껏 부풀어 오르는 마음을 가눌길이 없다. 그런데 간혹 여행사의 무자비한 횡포에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돈을 두 배로 내고 가야 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곤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여행사 횡포에 대한 대처방법을 제대로 챙겨 나의 소중한 휴가를 지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Q

여행요금을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2배나 올릴 수 있는 건가요?

김여행 씨는 계속되는 야근에 심신이 지쳐 버리자 여름휴가를 방콕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여행 상품을 찾아보던 중, 대박여행사에서 저렴하게 나온 4박 5일에 50만 원짜리 패키지 상품을 보고 단박에 예약을 했다. 김여행 씨는 여행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며 꿈에 부풀기 시작했는데, 출발 15일 전에 여행사에서 전화가 왔다. 여행사는 '환율 상승으로 여행상품이 올랐다며 1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니 입금을 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김여행 씨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생각하며 분개했다. 이에 예약을 취소하려고 하자 여행사는 20일 전에는 환불이 안 된다며 횡포를 부렸다.

A

그렇다. 다만 무조건 동의할 필요는 없다.

여행업계에서 사용되는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2조는 해외여행을 기획한 여행업자가 여행요금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운송업체나 숙박업체에 지급해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 보다 5% 이상 증감한 경우이고, 둘째는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 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이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여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감했을 때는 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박여행사는 김여행 씨에게 인상분의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환율변동이나 숙박요금 변동 등의 사유로 여행사에서 여행요금의 증액을 요구했을 때 여행자가 무조건 이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에 의하면 여행자는 위와 같은 사유에 의해 여행요금이 증액되어 여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여행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여행 씨처럼 여행요금이 많이 오른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여행을 포기할 수 있다.

여행사 횡포 시 표준약관을 알아두자!

◎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바. 운송요금·숙박요금·환율의 증액으로 인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여행계약 해지 관련 사항

여행사의 취소통보 또는 여행자의 해제요구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 시		계약금 환급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통지기일 미준수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국민권익위원회의 활동사항입니다
더 노력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양건 국민권익위원장(가운데)이 11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총회에서 부회장에 당선된 후 파키스탄의 제이브드 말릭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회장(오른쪽)과 청 유 마카오부패방지청장(CCAC)(왼쪽)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양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세계옴부즈만협회(IOI) 부회장 당선

양건 국민권익위원장이 6월 11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9회 세계 옴부즈만협회(IOI,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총회에서 부회장에 당선됐다.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총회에 참석한 양 위원장은 대륙별 6개 지역 부회장 중 아시아지역 부회장에 당선돼 앞으로 4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IOI 부회장 당선 후 “지지해 준 회원국에 감사를 드리고, 우수 민원처리기법을 공유하는 등 세계 옴부즈만

들과의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여 옴부즈만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가기관이나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고충을 처리하는 비영리 기관들의 모임인 IOI는 1978년에 창설되었으며, 총 92개국의 138개 기관을 정회원으로 두고 있다.



『토지보상법론』을 펴낸 도시수자원민원과 차태환 과장(왼쪽)과 그가 저술한 『토지보상법론』(오른쪽)

권익위 공무원, 토지보상 민원 처리 12년 노하우 수록한 ‘토지보상법론’ 출간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 차태환(車泰煥·52) 도시수자원민원과장이 최근 바쁜 공식 생활중에 틈틈이 시간을 내 『토지보상법론』(부연사)을 펴냈다.

법학박사인 저자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도시수자원민원과과장과 전문위원으로 토지보상실무에 종사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심분 활용하여 토지보상법 전 분야의 이론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토지보상법은 공익과 재산권의 조화라는 미묘한 균형감각이 필요할 뿐 만 아니라 공법과 사법을 망라하고 있어 연구가 쉽지 않은 분야다.

저자는 “우리나라는 국토이용의 효율성이 우선시되어 국민의 권익 보호에는 자칫 소홀해지기 쉽다. 국민권익위에서 손실보상과 관련한 각종 민원을 처리하면서 토지보상법의 연구와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서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껴 책을 내게 되었다”면서 “다양하고 난해해지는 손실보상 민원업무의 실무 지침서로 활용되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양건 위원장(사진 왼쪽 네번째)은 7월 3일 오전 11시 서울 국민권익위 청사에서 다음커뮤니케이션 최세훈 대표이사(사진 왼쪽 세번째)와 SK커뮤니케이션즈 주형철 대표이사(사진 왼쪽 다섯번째)와 함께 정책검색서비스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새 정책 발표 때마다 포털에 정책 Q&A 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7월 3일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와 업무제휴를 하고 양 포털사이트에서 본격적인 정책검색서비스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정부민원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실제 민원처리 사례들을 검색해볼 수 있는 민원검색 서비스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또 12월부터는 정부 모든 부처가 신규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민간포털인 다음(Daum)과 네이트(Nate)에 '정책 Q&A'를 작성해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정책 적용사례들을 소개하는 정책검색서비스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위해 국민신문고와 다음·네이트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10월까지 구축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다음과 네이트 외에 국내 다른 인터넷 포털로도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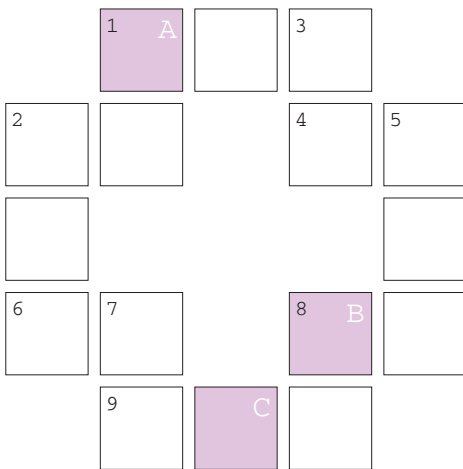


대학생 「청렴 홍보단」 발대식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군동 국민권익위 청사에서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총 12개팀 48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청렴 홍보단」 발대식을 가졌다. 대학생 「청렴 홍보단」은 권역별, 대학별 동아리를 중심으로 4인 1조로 구성된 63개 팀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선한 팀들로, 앞으로 5개월 동안 자신이 소속된 지역에서 다양한 캠페인과 청렴서명활동, UCC제작 등의 청렴홍보활동을 펼친다.

사연도 보내고~! 퀴즈도 풀고~!

『국민권익』은 독자의 참여로 만들어 집니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등을 엽서를 통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어린 비판을 환영합니다. 엽서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퀴즈의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다섯 분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응모마감 8월 25일)



문제〉 가로세로 십자퍼즐, 핵심단어를 찾으세요!

가로 열쇠

1. 이력을 적은 문서.
2. 공기 중의 수분이 엉기어서 미세한 물방울이나 얼음 결정의 덩어리가 되어 공중에 떠 있는 것.
4. 아라비아 반도의 북서쪽에 있는 호수. 예로부터 높은 염분 때문에 사람 몸이 뜨기 쉬운 것으로 유명하다.
6. 한민족의 시조로 받드는 고조선의 첫 임금.
8. 돼지의 창자 속에 고기불이, 두부, 숙주나물, 파, 신지, 당면, 표고버섯 따위를 이겨서 양념을 하여 넣고 양쪽 끝을 동여 매고 삶아 익힌 음식.
9.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사신을 그린 그림.

세로 열쇠

1. 사람의 성 아래에 붙여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부르는 말.
2. 1에서 9까지의 정수 중에서 두 수를 곱한 결과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외우기 쉽게 만든 곱셈의 기초 공식.
3.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음. 책 따위의 첫머리에 그 책의 취지나 내용을 적은 글.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바닷가. 예로부터 수려한 경치와 온천, 해수욕장으로 유명하다.
7. 예전에 군인이나 군대를 이르던 말. 비슷한 말로 병사, 군병, 군졸 등이 있다.
8. 어떤 물질 가운데에서 주성분인 순물질이 차지하는 비율. 보통, 중량 퍼센트로 나타낸다. OO 99.9%의 금

지난 호 퀴즈 정답
조사관

5+6월 퀴즈 당첨자

김윤경, 여은비, 이미란, 장성숙, 최선희

※ 문제 십자퍼즐을 채운 후 A, B, C에 들어갈 낱말을 조합하신 후 독자엽서에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 게재됩니다.

독자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김윤경(경남 진주시)

지인 한분이 행정관청으로부터 피해를 입어 해당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니 담당자가 사직했다고 하면서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이미란(전북 전주시)

지금까지 정부기관이나 공무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대표적으로 '딱딱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분좋은 편지'와 '기분좋은

만남' 두 기사를 읽고 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 일상 가까이에 다가와 정말 힘이 되어 주는 '든든한 친정'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선희(강원도 정선군)

민원 담당 부서에 근무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입장에서 행정처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만큼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여러 차례 접수된 반복 민원의 경우 더욱 그러한데 '행복메신저'

를 읽고서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 업무에 임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다지게 되었습니다.

장성숙(강원도 원주시)

비록 자신의 배에서 나온 자식은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깊은 마음으로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가족의 따뜻한 모습을 보면서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은비(충남 공주시)

실생활에서 법령보다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행정규칙이라는 기사 내용을 보고 놀랐습니다. 국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정규칙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고 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정말로 힘찬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서민금융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 신용 7~9등급 근로자도 500만원까지 대출
(신협 6.30~, 농협·우리 7월~, 국민 8월~)
-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크레딧) 기관 300곳 확대
- 노점상·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3.4조원 추가(6월)

●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을 좀 더 쉽도록 하겠습니다

- 3자녀 이상 가구에 공공분양·국민임대주택의 10% 배정(8월)
-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20% 할인(8월)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주택임대료 16% 인하
- 도시서민 밀집지역 200곳 현대식 화장실 설치

● 서민의 보육·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0~4세의 50%는 보육시설·유치원비 전액 지원(7월)
- 차상위계층의 0~1세는 집에서 돌봐도 10만원 지원(7월)
- 소득3분위 가구의 대학생도 학자금 무이자 대출(2학기)

● 영세상인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 대형마트 진출시 시도별 사전조정협의회 운영(7월)
- 전국 전통시장 공용 상품권 발행(7월)
- 여행 새로 일하기센터의 주부인턴·취업훈련 확대(7월)

● 암환자, 어린이의 의료비가 줄어듭니다

- 희귀난치병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 10%로 인하(7월)
- 암환자 본인부담률 5%로 인하(12월)
- 한의원 물리치료 및 어린이 충치 홈메우기 보험적용(12월)



국민의 시원한 여름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달립니다!

소리만 들어도 시원해지는 네 음절, '여름휴가' 철이 다가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이 시원한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는 그 순간에도

국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달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를 통해

작은 고민에서부터 큰 고충을 해결하여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